

정서 발달 과정에서 정서의 차원 도출을 위한 대표 정서 단어 도구 개발*

장 혜 진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정서 단어의 분류를 통해 정서 차원의 분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서 발달이 어떠한가를 규명한 경험 연구이다.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대표 정서 단어의 선정이므로, 그 기초 자료로서 먼저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합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서 차원을 분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절한 단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정서 단어들을 토대로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정서 단어 목록을 선정한 다섯 편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387개의 정서 단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8차례에 걸친 유사성에 따른 정서 단어 분류 과제와 그 결과에 따른 단어 분류를 반복 시행하여 387개의 단어를 216개, 61개, 52개, 48개로 축약하였다. 또한, 생소한 정서 단어로 인한 분류 결과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를 선별하고자 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약된 48개의 정서 단어를 재선별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6개의 대표 정서 단어가 선정되었다.

주요어 : 정서, 정서 단어, 정서 차원, 정서 분화, 정서 발달

* 본 연구는 장혜진(2019)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Tel: 055-320-4024, E-mail: ykkim@inje.ac.kr

인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한두 가지 정서에서 많은 정서로 발전하는가는 정서 발달을 통해 알 수 있다(Sroufe, 1996). 정서 발달은 정서의 분화로부터 시작한다. 즉, 미분화된 정서 상태에서 시작해서 발달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분화된 상태로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컨대, 정서의 분화, 정서 표현, 정서 이해, 정서 조절의 순서로 발달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화되어 간다(황매향, 2008).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정서 발달은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 발달을 보는 관점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안신호, 1988), 기본 정서의 구성 연구(정상녀, 김경숙, 2010; Levenson, 2011),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등의 특정 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이혜진, 2017; Keltner, Sauter, Tracy, & Cowen, 2019), 정서 구조 및 차원의 탐색 연구(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이만영, 이홍철, 1990; 한의환, 차형태, 2017) 등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동안 어떤 정서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되어왔다. 이 논쟁의 핵심은 정서를 개별 정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서를 차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Ekman과 Oster(1979)는 정서 범주의 분류로써, 정서의 개별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개별 정서는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부러움’, ‘자부심’ 등의 기본·복합 정서로써,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된다. 이는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그 기초에 바탕을 둔 공통된 차원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개별 정서 범주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이한 정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즉, 정서는 그 강도와 상태에 따라 아주 약한 상태에서 아주 강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 범주로

구분한다면 개인의 다양한 내적 상태를 상세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하나의 정서로만 분류될 뿐이다(이수정, 유재호, 2000). 또한, 정서는 개인의 삶의 경험에 대해 일어나는 중심적인 요인으로써, 단일 감정으로 경험되기보다 여러 내적 상태가 혼재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영역인 것이다(Plutchik, 2003).

이러한 개별 정서 이론의 한계와 타당성에 의문을 가진 연구자들은 그 대안적인 견해로 정서를 차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Mauss & Robinson, 2009; Russell, 1978). 이는 정서의 생성과 정서 내용의 다양성을 차원화 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정서들 사이의 중요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타내는 소수의 차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정서는 유사성과 강도, 양극성에 따라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와 같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원이 교차되는 지점마다 서로 다른 정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서 차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정서들 간의 구분보다 어떻게 하나의 정서가 또 다른 정서로 발달해 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Wundt(1907)의 주장에서 출발하였으며, Schlosberg(1952)가 이를 지지하게 되면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안면 표정이나 음성 상태 등의 생리적 변화(김혜리 외, 2012; Green & Cliff, 1975), 자기 보고(Russell, 1980), 정서 단어의 분류(이수상, 2016) 방법을 통해 정서의 차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한 개에서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차원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공통적으로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 차원의 도출이 일치하고 있으나, 가장 분명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쾌-불쾌’ 차원을 제외한 ‘활성화-비활성화’ 차원에 대하여 연구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Schlosberg(1952)는 안면 표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쾌-불쾌’,

‘주의-거부’의 2차원 정서 구조를 도출하였고, 이후 후속 연구(1954)에서 활성화 수준과 관련된 ‘수면-긴장’을 세 번째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자기 보고 방식으로 정서의 구조를 밝힌 Averill (1975)은 ‘평가’와 ‘활동성’, ‘힘’의 세 개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Russell(1980)은 정서 단어를 통해 정서가 ‘쾌-불쾌’, ‘활성화’의 2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Plutchik(1980)은 정서를 ‘강도’, ‘유사성’ 및 ‘양극성’의 특성을 지닌 3차원 구조로 설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서 차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인 안면 표정과 생리적 변화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나 특정 정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문화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반응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유쾌하거나 불쾌한지 혹은 각성되거나 이완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과대 추측일 가능성이 있다(Kalat & Shiota, 2005; Mauss & Robinson, 2009). 예컨대, 모든 정서가 특징적인 얼굴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손선주, 박미숙, 박지은, 손진훈, 2012). 또한, 생리적 변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과 소화 작용 및 인지 능력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Berntson, Cacioppo & Larsen, 2000), 정서를 구분하는 데 비교적 정확도가 낮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많은 정서 단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단어 간에는 의미상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정서적 경험을 매우 세밀하면서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다(홍영지, 남예은, 이윤형, 2016). 언어의 다양성과 포괄성이(민경환, 구자숙, 2002) 정서와 관련된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서 연구의 재료로써 정서 단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안신호 외, 1993). 특히, 한 단어로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정서의 차원을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다(Kalat &

Shiota, 2005). 또한, 정서 단어를 사용하는 연구 상황에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작과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홍영지 외, 2016). 즉, 정서 단어는 정서를 나타내는 가장 발달된 표현 수단으로, 여러 언어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정서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손선주 외, 2012). 이는 정서의 본질이 되는 차원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 단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최해연, 2012). 또한, 정서 단어는 단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나타내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양극성을 보이기도 하며,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강하거나 약한 정서 강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Kagan, 2007),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유용하고 의미 있는 도구가 된다(Heider, 1991). 이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서 차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한덕웅, 강혜자, 2000) 정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성을 띤 정서 단어 목록을 어떻게 정확히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박인조, 민경환, 2005). 이 때, 정서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화하여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정서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연구는 보다 쉬울 것이다(이수상, 2016).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서를 가리키는 언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민경환, 구자숙, 2002). 다시 말해, 정서 상태를 적절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동일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러 문화권마다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정서 단어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한덕웅, 강혜자, 2000). 또한, 정서를 그들 사이

의 상호 관련성에 따라 구분하고자 할 때, 어떤 특성에 기반하였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정서 범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James, 1950). 정서 상태를 잘 나타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서 단어가 일상생활과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Plutchik, 2003). 즉, 정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해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한 국외 연구로 Bush(1972)와 Averill(1975)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안신호 등(1993), 한덕웅과 강혜자(2000), 박인조와 민경환(2005)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중 Bush(1972)는 성격과 정서 연구를 다룬 선행연구들로부터 2,186개의 형용사를 기초단어로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2,186개의 단어들에 ‘행동’, ‘성격’, ‘감정’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혹은 ‘세 범주 모두 적합하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참가자의 75% 이상이 정서를 나타낸다고 판단한 264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하였고, ‘쾌-불쾌’, ‘활성화’, ‘공격성’의 3차원 구조를 발견하였다. 한편, Averill(1975)은 정서 단어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Allport와 Odbert(1936)가 성격을 기술하는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서 발췌한 18,000개의 단어를 검토한 후, 정서 단어로 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717개의 단어를 선별하여 예비 단어 목록을 마련하였다. 다음, 각 단어마다 얼마나 정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각 단어가 얼마나 자신에게 친숙하게 여겨지는지를 대학생들에게 평정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기준으로, 351개로 구성된 정서 단어 목록을 제작하였다. 한편, 이만영과 이홍철(1990)은 Russell(1980)의 방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평정하도록 하여 53개의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안신호 등(1993)은 국어사전에서 정서와 관련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몇 차례의 분류 과정을

반복한 결과, 96개의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로부터 정서 단어를 추출하여 86개의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자유응답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정서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834개의 정서 단어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이만영과 이홍철(1990)의 연구에서는 정서 단어 수집 시 국어사전 혹은 자유응답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시(詩)라는 새로운 유형의 글을 통해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도구로서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시가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정서와 시의 구조가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빈도가 높은 정서 단어들을 선별할 수 있으나 정서를 의미하는 단어의 수가 적어 단어 총집 구성에 제약이 뒤따른다.

둘째,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표준어로 표현된 정서 단어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칭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든 언어 규범이며 어휘가 나타내는 의미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이에 주로 신문, 방송, 서적 등의 매체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에는 지역과 세대마다 방언을 비롯한 변종(變種)이 있기 마련이다. 지역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갖고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 단어 또한 제한되는 한계를 보이며, 부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단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표준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서 단어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추가하여 정서 단어 총집을 제작하였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서 단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연구 참가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대학생에 한하여 그 반응 자료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학생 이외의 다른 대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서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제작한 정서 단어 목록은 기존의 연구들이 의존했던 국어사전에 비해 최신의 어휘들이 실려 있고, 그 사용 빈도를 참고할 수 있다는 까닭에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에 근거하여 단어를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 어휘들을 포괄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선별한 정서 단어 목록의 타당성 역시 검증하기 어렵다.

다섯째, 정비영(2016)의 연구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이 제작한 한국인의 정서 단어 목록에 기초하여 정서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어를 선별한 만큼, 동일한 이점이 있으나 단어를 추출하고 삽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모, 아동, 그리고 교사의 평가가 비교적 부족하다. 그 밖에 주요 정서 단어들은 제한적이면서도 그 가운데 중복되거나 특정 연구에서만 제시된 고유한 단어가 있었고 문법적인 형태가 다를 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포괄적인 단어 목록의 구성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서의 차원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정서 단어에 내재된 정서

차원의 분화로 이루어지는 정서 발달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절차에서 확인되는 방법적인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서 단어 총집을 만든 후, 몇 차례의 선별을 실시하여 재구성을 거친 후에 최종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표 정서 단어 도구 개발

주요 정서 단어 선정

정서 단어 총집과 주요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대표 정서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까지,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일관성과 타당성을 지닌 단계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표 정서 단어는 정서의 적절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및 경험 빈도의 수준이 높고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 가능한 단어로, 정서 단어로 보기에 적합한 주요 단어들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복없이 그리고 빠짐없이(exclusive and exhaustive)’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단어 선정 절차가 저마다 다양하여 행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정서 단어로 보기에 부적합한 단어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정서 단어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최종 산출된 정서 단어일지라도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표 정서 단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정서 단어 총집 구성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선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합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정서 단어 목록을 작성한 기존의 연구들(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외, 1993; 이만영, 이홍철, 1990; 정비영, 2016; 한덕웅, 강혜자, 2000)에서 제안한 정서 단어들을 근거로 하여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다섯 편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유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서 단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각 연구마다 제시된 단어들이 제한적이면서도 특정 연구에만 제안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홍영지 외, 2016).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선정한 정서 단어들을 비교 및 분석하여 누락되는 정서 단어 없이, 다양하게 아우르기 위한 범용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박수진, 정찬섭, 1998).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해당 정서를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고 경험하는지를 평정한 결과로부터 선별된 것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정서 단어의 적절성과 정서의 경험 빈도를 잘 반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절차에서 확인되는 방법적인 한계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정교한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연구의 최초 정서 단어 목록과 그로부터 최종 정서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만영과 이홍철(1990)은 대학생들에게 정서와 감정 상태를 일컫는 어휘들이 정서 단어로서 적절한지, 근래의 자신의 기분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17편의 시를 무작위로 다섯 편씩 제시하여 읽게 한 후, 개인의 느낌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서와 감정 상태를 기술하는 어휘로

서의 적절성 평가 결과의 평균치가 3.0 이하인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유변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53개의 정서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국어사전에서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익숙하지 않지만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정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다음, 각 단어가 성격, 감정, 행동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가자들에게 응답하도록 한 Bush(1972)의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참가자들의 85% 이상이 감정 상태로 평가한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국어사전의 개념적 정의와 어원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여 대표적인 정서 단어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96개의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셋째,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로부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자유 응답하도록 하고, 국어대사전에서 정서를 일컫는 단어로 판단되는 단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안신호 외, 1990; 이만영, 이홍철, 1990; 한덕웅, 1996, 2000; Averill, 1975)에서 제시된 몇 개의 정서 단어들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834개의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정서 단어가 100개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 경우, 연구 참가자가 분류 과제를 실시하기에 복잡하여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 된다. 또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적절성 평균 점수의 범위는 1.27(요구하다)에서 6.87(기쁘다)까지로, 일부 단어의 측정치가 낮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정서 단어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재차 요구되었다. 한편, 적절성 평정치가 높을수록 선행연구들이 정서 단어로서 중요하게 다루는 희(喜), 노(怒), 애(哀), 락(樂)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적합한 정서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정서 단어를 축약하는 경우, 정서 단어로

서의 적절성 측정치는 유용한 선별 기준이 된다 (한덕웅, 강혜자, 2000; 박인조, 민경환,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선정 단어와 그 수를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알맞다는 판단 하에, 834개의 단어 중 정서 단어로서의 적절성 평균 점수가 5.9 이상인 단어 88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적절성의 평균 점수 범위를 4.0에서 5.9 미만으로 분류했을 때, 문법적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들을 제외하더라도 250~350개 내외의 단어가 선별되어 100개 내외로 맞추고자 하는 단어 수의 축소와 관련이 적어진다. 이와 반대로, 측정치를 6.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50개 내외로 산출되어 기대한 단어 수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적절성 평균 점수를 5.9 이상의 기준으로 나열한 결과, 100개 내외가 산출되었고 형태만 다를 뿐, 의미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독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을 재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88개를 선정할 수 있었다.

넷째,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로부터 정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 중, 세 품사로 이루어진 단어와 한자어로 된 명사 형태의 단어를 골라 정리하여 통사론적 규칙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간주되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각 단어에 대한 원형성과 친숙성을 평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원형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86개의 단어를 대표 정서 단어로 선정하여 이를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다섯째, 정비영(2016)의 연구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이 제작한 한국인의 정서 단어 목록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만 3~5세의 아동이 획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를 선별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정서 단어의 이해 및 표현 유무를 살펴본 Ridgeway, Waters와 Kuczaj(1985)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분을 나타내는 125개 단어를 선별하여 미국의 18개월~6세 아

동의 부모 27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각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64개의 단어를 선정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로부터 수집한 정서 단어는 총 387개이다.

주요 정서 단어 구성

앞서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정한 정서 단어는 총 387개였다. 그러나 어머니 수식어와 같이 문법적인 형태가 다를 뿐,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개선된 분류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정서 단어는 정서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어휘가 유의(有意)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적용되는 맥락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미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 제시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4인의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후, 이에 의거하여 정서 단어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387개의 주요 정서 단어 중에서 171개의 중복되는 단어가 발견되어 제외하였고, 특정 연구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단어는 그대로 유지하여 총 216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투리는 표준어로 변경하였다. 둘째, 서로 비슷한 용어는 같은 것으로 보고 통합하여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다. 셋째, ‘사랑스럽다’는 ‘사랑하다’로 바꾸듯이 수동태, 타동사의 구조로 된 용어는 능동태로 변경하였다. 넷째, ‘가슴이 뻐하다’, ‘가슴이 아프다’ 등의 동사구는 제외하고 동사 또는 형용사만을 취하였다. 단, 명사 형태의 단어 중 다른 품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놀라워하다’는 ‘놀라다’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본 어간과 어미가 보조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된 용어는 제외하였다. 여섯째, 선별된 단어는 모두 명사나 동명사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대표 정서 단어 선정

앞서 기술한 바대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총 216개의 주요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한 몇 차례의 분류를 통해 단어 목록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단어 분류 과제 자료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216개의 단어로는 통계 프로그램이 분석 가능한 일정한 변인의 수를 초과하여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216개의 단어를 취급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으며, 216개의 단어가 차원 공간 내에 모두 배열된다면 단어의 분포 양상을 시각화하여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된 단어들은 전체 정서 단어에 내재된 구조를 나타내기에 불안정하며, 그 대표성을 상실한다(박수진, 정찬섭, 1998).

또한, 연구 참가자가 216개의 단어를 분류하는 일은 물리적·시간적·심리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분류 작업에서 다룰 수 있는 단어 수를 고려하여 간추릴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서 단어로 보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서로 다른 단어가 있어 최종 선정된 대표 정서 단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서 단어로서의 적절성과 사용 빈도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해당 정서의 경험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고 친숙하며,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표 정서 단어 선정을 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동은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미성숙한 인지 능력으로(Sowell, Thompson, Tessner, & Toga, 2001) 아직 상이한 정서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Widen & Russell, 2008) 오직 ‘쾌-불쾌’ 차원에 의존하고 정교화되면서 성인과 유사한 차원으로 분화된다(신영숙, 2008). 문혜신, 김진관과 오경자(1998)에 따르면, 아동의 ‘쾌-불쾌’의 차원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더욱 높다. 이는 정서 단어에 대한 아동의 부정확한 판단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의 정서 상태와 또 다른 정서 상태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명확해지고 성숙해지는 단계적 발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동의 초기 정서 경험이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Denham & Couchoud, 1990).

그만큼 대표 정서 단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도구이므로, 정서 단어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 단어를 포괄하여 안정적인 차원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서 단어를 선정하여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서 단어 분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표 정서 단어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정서 단어의 분류 체계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살펴보고,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 정서 단어 지정 분류 과제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가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1~4학년으로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서를 가리키는 언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Plutchik, 2003). 본 연구 과정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참가자로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타 연령에 비해 언어 능력이 높고, 30~50대에 비해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활동적인 정서 경험을 하므로, 성인의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최해연, 2012). 전 연구 과정에서 9차를 제외한 참가자의 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 수

연구 차수	대표 정서 단어의 수	참가자 수	참가자 구성
1	61	50	남녀 각 25명
2	52	50	남녀 각 25명
3	52	50	남녀 각 25명
4	48	50	남녀 각 25명
5	48	50	남녀 각 25명
6	48	50	남녀 각 25명
7	48	50	남녀 각 25명
8	48	50	남녀 각 25명

연구 절차

각 연구는 모집된 참가자들을 개인 혹은 집단으로 구성한 후, 다른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참가자에게 준비된 지시문을 제시하여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하였다. 다음, 각 분류 시행마다 지시문에 따라 지정 분류를 하도록 하였다. 참가자 참여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경험으로 형성된 분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판단이 이후 연구에도 개입되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구 도구

지정 분류 과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지정 분류 과제(bounded sorting test)는 Bush(1972)의 연구에서 실시한 자유 분류 과제(free sorting test)의 방법을 활용하여 새롭게 변경한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정서 단어의 분류 방식이 자유 분류 과제로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연구들보다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

으로 변형한 것이다. Bush(1972)의 분류 방법은 범주 수에 상관없이 의미가 같은 정서 단어끼리 분류하도록 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보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의 지정 분류 과제는 지정한 범주 수만큼 정서 단어를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유사성에 따른 자유 분류 과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제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성실한 분류가 되기 쉽다. 그에 반해, 지정 분류 과제는 각 분류 순서마다 분류 범주 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과제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간이 절약되어 정의 있는 분류가 가능한 용이한 방식이다. 또한, 단어의 구성에 따라 도출되는 차원이 달라지는 만큼 단어에 내재된 정서의 구조를 민감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어에 대한 참가자 개인의 인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견해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한편,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정서 단어를 3회 분류하였다. 그들은 1차 분류에서 단어를 두 범주로 나누고,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생성된 범주를 다시 두 범주로 나누었으며, 3차 분류에서 다시 2차 분류에서 만든 범주를 두 범주로 나누면서 매 분류마다 두 개, 네 개, 여덟 개의 범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범주에 분류되는 정서 단어가 먼저 형성된 범주에 따라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면이 있어 정서 단어에 대한 참가자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지정 분류 과제를 시행하는 데 앞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정서 단어 카드 분류에서의 원칙은 이전 분류 범주의 수와 다음 분류 범주의 수가 배수 관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로 분류 과제에서는 참가자가 먼저 분류한 범주를 다음 차례에서 다시 분류하거나 먼저 분류한 것을 이후에 다시 합치는 방식의 책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 이전 분류에 내재된 차원이 이후에도 반영된다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지닌 다양한 차원의 도출이 어렵다. 둘째, 각 범주를 구성하는 최소 정서 단어 카드의 수는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분류되는 카드의 수가 한 개인 어떤 범주가 있다면 유사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차원의 도출이 신뢰롭지 못하고 부적합하다. 셋째, 첫 번째 분류 시 가지고 있던 정서 단어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순 반복할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 분류가 뒤 분류에 영향을 미치거나 뒤 분류가 직전의 분류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되, 참가자의 머릿속에 있는 분류 체계가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분류마다 분류하는 범주 수를 새로운 수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지정 분류 과제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시문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돕고,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시켜 지

시문을 제작하였다. 지시문에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 단어 카드를 분류하는 조건과 분류 범주 수, 그리고 횟수 및 절차가 있다. 정식 분류에 앞서, 지시문의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를 참가자 스스로가 점검하고 연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연습 분류를 1회 실시하였다. 이를테면, 총 분류 횟수가 연습 분류를 포함하여 8회인 경우, 먼저 정서 단어들을 다섯 개의 범주로 연습 분류한 다음, 21-13-17-6-25-9-4개의 제시된 범주 순서대로 분류한다. 한편, 2~3차, 4~7차 연구의 분류 범주 수와 횟수는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분류를 실시하는 동안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차원들이 점차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표 정서 단어 도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했던 과정으로 본다. 9차 연구를 제외한 총 분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범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대표 정서 단어 카드

가로 7cm × 세로 3cm 규격의 종이로 제작되었다. 대표 정서 카드의 앞면에는 대표 정서 단어를, 뒷면의 우측 상단에는 대표 정서 단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작은 크기로 표기하

표 2. 대표 정서 단어의 분류 내용 및 대표 정서 단어 카드의 수

연구 차수	대표 정서 단어의 수	분류 횟수	분류 범위	총 정서 단어 카드의 수
1	61	8	5→21→13→17→6→25→9→4	488
2	52	8	5→14→19→10→22→8→17→3	416
3	52	8	5→14→19→10→22→8→17→3	416
4	48	7	5→17→9→4→21→13→7	336
5	48	7	5→17→9→4→21→13→7	336
6	48	7	5→17→9→4→21→13→7	336
7	48	7	5→17→9→4→21→13→7	336
8	48	8	5→11→3→22→9→13→6→19	384

주. 분류 범위는 연습 분류 1회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였다. 분류 과제를 1회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표 정서 단어 카드의 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Matlab(Matrix Laboratory) 2017과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5 통계 프로그램의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서 단어 분류 과제에서 연습 분류를 제외한 정식 분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로, Matlab을 통하여 대표 정서 단어 분류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자료를 통합하고 변환하였다. 즉, n 개의 정서 단어들 간의 유사성과 상대적 거리를 $n \times n$ 으로 구성된 유사성 행렬(similarity matrix)로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단어는 참가자가 나눈 범주 수에 영향을 받는데, 분류된 단어들의 유사성 정도는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빈도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범주 수를 합산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행렬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n 개 개체의 심상자극에 대한 구조(차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분석 기법이다(허명희, 양경숙, 2001).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사성(similarity) / 비유사성(dissimilarity) 혹은 근접성(proximity)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잠재적 차원(latent dimension)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시각적으로 배치시킨다(박광배, 2000). 유사성이 높은 개체들은 다차원 공간 상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유사성이 낮은 개체들은 멀리 위치한다(Russell, 1980). 계층적 군집분석은 연구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인 분류 변인을 제시하여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인 몇 개의 집단을 확인하는 자료 분석 기법이다. 유사성 자료와 분

석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및 적합도를 확인하고, 차원의 수와 차원의 의미 해석,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의 분석 결과를 오버레이(overlay)하여 여러 단계로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예컨대,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가 발견된다면 위계적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표 정서 단어에서 제외된 후, 다시 위계적 분류 방식을 통하여 주요 정서 단어에 속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배치된 단어들의 유사성 및 상대적인 관계가 타당하고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가 일치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는 전 과정동안 단어들의 의미적 관계의 속성과 범주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대표 정서 단어를 재검토하고 일부 변경하였다. 이는 결과의 해석이 분석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고 실제 단어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반복하여 살펴봄으로써 정서의 구조가 안정적인 차원으로의 도출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1차 정서 단어 분류: 61개 단어

정서 단어의 수를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상담심리학 교수 1인, 발달심리학 교수 1인, 정서심리학 교수 1인, 인지심리학 교수 1인으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216개의 정서 단어를 위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정서는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의 특성에 따라 연결된다(Plutchik, 2003). 위계적 분류는 이에 근거하여 정서 단어의 의미를 일관성 있는 체계로 분류하고 표상하여 그 단어에 대한 이해와 비교 및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즉, 단어를 정서의 유형과 의미적 특성에 따라 대상별로 분류하

는 것이다. 이는 위계적 분류 기준과 절차가 정서 단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진 통일된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첫째, 단어의 개념에 따른 판단이나 추측 없이 직관적인 분류, 즉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사전적 단어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둘째, 단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성에 따라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해당 범주 내에 포함된 정서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위 정서 단어를 각각 선정하여 ‘기쁨’, ‘즐거움’, ‘애통’, ‘슬픔’ 등의 ‘소분류’로 명명하였다. 셋째, 소분류의 정서 단어들을 유목화하여 상위 정서 단어로 적합한 단어를 선정한 후에 ‘중분류’로 명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분류들을 ‘기쁨’, ‘슬픔’ 등으로 나누었다. 넷째, 중분류를 다시 유목화하여 정서 강도 수준과 의미 유사성에 따라 ‘쾌 - 중립 - 불쾌’ 범주로 나누어 ‘대분류’로 명명하였다. 다섯째, 여기까지의 모든 절차에서의 상위 정서 단어는 명사형으로 표현하였다. 여섯째, 소분류에 속한 정서 단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선정하여 ‘대표 정서 단어’로 명명하였다. 이 때, 대표 정서 단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나타났다. 예컨대, 대표 정서 단어 ‘존경심’의 경우, 하위 범주에 포함된 정서 단어가 ‘존경심’만 있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동사형인 ‘존경하다’로 변경하여 대표 정서 단어로 사용하였다. 일곱째,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정서 단어들, 즉 ‘덤덤하다’, ‘불편하다’, ‘서먹하다’는 ‘반갑다 - 서먹하다’, ‘편하다 - 불편하다’, ‘홍분하다 - 덤덤하다’와 같이 소분류의 주요 정서 단어 목록에 속한 반대되는 단어와 짝지어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로 다루지 않고 각각의 단어를 개별 정서로 따로 구분하여 추가하였다. 따라서 58개의 대표 정서 단어는 세 개의 반대어를 포함하여 61개로 선정되었다. 여덟째, 각 대표 정서 단어에 해당하는 주요 정

서 단어 내 포함된 단어의 수가 일곱 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정서 단어를 두 개로 선정하거나 다른 단어로 변경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정서 단어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다 친숙하고 대표성을 가진 정서 단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즉, 대분류 내의 소분류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소분류들이 통합된 경우, 새로 추가된 주요 정서 단어도 고려하여 대표 정서 단어로 포함시켰다. 이를테면, 소분류 ‘만족’, ‘행복’이 통합되어 대표 정서 단어를 ‘만족하다’, ‘행복하다’로 선정하였고, 소분류 ‘불쌍함’, ‘가여움’이 통합되어 소분류 명이 ‘ 측은’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불쌍하다’, ‘가엾다’로 명명할 수 있었다.

아홉째, 정서 단어들 중 ‘간절하다’, ‘공감하다’, ‘사무치다’와 같이 어떠한 범주에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216개의 정서 단어를 위계적으로 나누어 총 61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그림 1)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오버레이(overlay) 하여 그 결과를 통해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일부 변경하였다.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는 분류된 단어들로 구성된 정서 차원에 대한 설명을 3차원의 평면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X축과 Y축으로부터 각각 1차원과 2차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두 개의 차원이 교차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3차원을 해석할 수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분류된 단어들 간의 유사성 정도가 0~25단위의 상대적 거리로 표시되는데,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에는 위계적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다차원척도법에서 각 범주를 형성하는 단어들이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유사성 거리에 따라 한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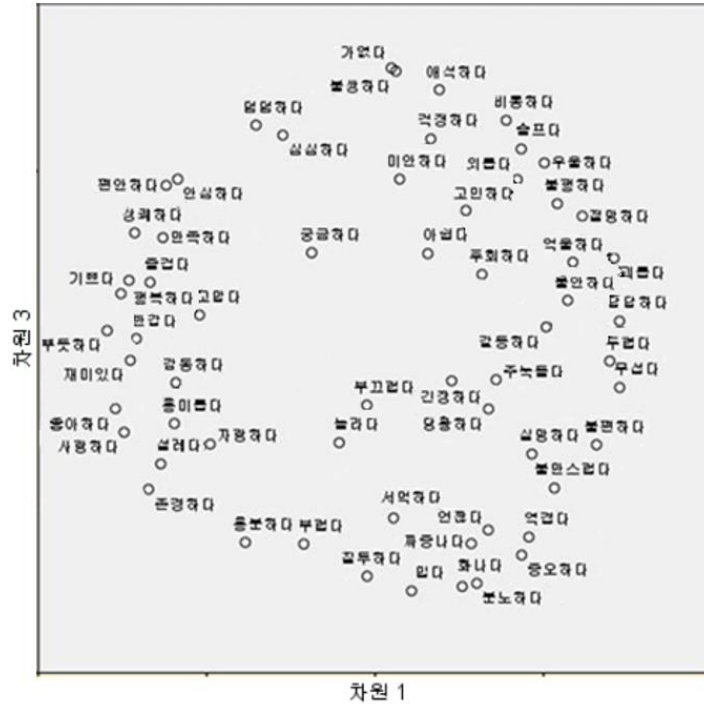


그림 1. 61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주를 이루는 단어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단어들을 모두 유지하되, 재분류를 통한 대표 정서 단어 및 위계적 분류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재차 검증하였다. 반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대표 정서 단어에서 제외시키거나 하위 정서 단어 범주에 속한 단어와 대체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즉, 위계적 분류에서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 정서 단어를 중분류와 소분류에서 제외한 후에 하위 정서 단어 범주로 이동시키거나 관계되어 있는 중분류와 소분류를 다른 소분류로 이동시켜 통합하였다. 또한, 중분류와 소분류의 경우, 범주들 간에 정서 강도는 다르나 의미가 유사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 명(名)을 새롭게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에서 대표 정서 단어인 ‘감동하다’, ‘반갑다’, ‘좋아하다’, ‘설레다’, ‘사랑하다’, ‘고맙다’, ‘존경하다’ 또는 ‘갈등하다’, ‘답

답하다’, ‘억울하다’, ‘고민하다’, ‘주눅들다’, ‘걱정하다’의 유사성 정도는 5단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적 분류와 상응하였다.

반면에,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안심하다’, ‘편안하다’, ‘자랑하다’가 3단위의 거리로 분류된 범주이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에서 ‘자랑하다’가 같은 범주로 묶이지 않았으므로 대표 정서 단어에서 제외하였고, ‘안심하다’, ‘편안하다’는 1단위로 분류되므로, ‘편안하다’를 ‘안심하다’에 통합시켜 대표 정서 단어에서 제외하였다.

대표 정서 단어 ‘존경하다’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에서 ‘감동하다’, ‘반갑다’, ‘좋아하다’, ‘설레다’, ‘사랑하다’, ‘고맙다’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으므로, 대표 정서 단어 ‘사랑하다’와 통합하였다. 이에 하위 범주에 포함된 단어가 여덟 개가 되면서 대표 정서

단어에 ‘그렵다’를 추가하였다. 대표 정서 단어 ‘뿌듯하다’는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상쾌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흥미롭다’와 동일한 범주로 묶이므로, ‘만족하다’로 이동하고, 이에 해당하는 하위 정서 단어의 수가 일곱 개가 되면서 ‘행복하다’를 대표 정서 단어로 추가하였다. 대표 정서 단어 ‘긴장하다’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에서 ‘당황하다’,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되어 대표 정서 단어 ‘불안하다’로 이동한 결과, 하위 정서 단어 범주 내 단어 수가 일곱 개가 되면서 ‘초조하다’를 대표 정서 단어로 추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 정서 단어 ‘흥미롭다’는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상쾌하다’, ‘뿌듯하다’, ‘즐겁다’, ‘재미있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되어, 대표 정서 단어 ‘재미있다’와 하나로 합하였다. 그리고 대표 정서 단어 ‘두렵다’와 ‘무섭다’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의 유사성 정도가 2단위로 나타났고,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에서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섭다’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분류 과제의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단어를 재검토 및 재구성하여 61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52개로 축약하였다.

2차 정서 단어 분류: 52개 단어

방 법

연구 도구

정서 단어 카드

2차 정서 단어 카드는 1차 연구에서 사용한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단, 이전 연구 결과에 따라 정서 단어 카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고민하다’, ‘긴장하다’, ‘답답하다’, ‘두렵다’, ‘반갑다’, ‘부럽다’, ‘분노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비통하다’, ‘뿌듯하다’, ‘상쾌하

다’, ‘서먹하다’, ‘아쉽다’, ‘애석하다’, ‘자랑하다’, ‘존경하다’, ‘주눅들다’, ‘편안하다’, ‘흥미롭다’를 제외한 반면, ‘그렵다’, ‘노하다’, ‘몽클하다’, ‘분하다’, ‘섬뜩하다’, ‘애달프다’, ‘애통하다’, ‘유쾌하다’, ‘자랑스럽다’, ‘창피하다’, ‘초조하다’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오버레이 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정서 단어의 분류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반영하였고, 52개의 대표 정서 단어의 수는 변함없이 동일하였다.

3차 정서 단어 분류: 52개 단어

방 법

연구 도구

정서 단어 카드

3차 정서 단어 카드는 앞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의 대표 정서 단어 수와 동일하나, 분석 결과에 따라 정서 단어 카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예컨대, ‘그렵다’, ‘몽클하다’, ‘섬뜩하다’, ‘애달프다’를 제외한 반면, ‘공포스럽다’, ‘번민하다’, ‘존경하다’, ‘탄복하다’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그림 2)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오버레이 하여 그 결과를 통해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 결과, 52개

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 둘째, 갑작스러
위 두렵거나 흥분 상태에 있다, 셋째, 어처구니
없을 만큼 괴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에 참가자들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분류할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 정서 단어인 ‘놀라
다’를 세부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놀
랍다’로 대신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 앞
서 시행한 연구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48개
의 단어 지정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단어를 재검토하고 분류하여 재구
성하였다.

방 법

연구 도구

정서 단어 카드

앞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대표 정서 단어 수는 동일하나, ‘놀라
다’를 제외한 대신, ‘놀랍다’를 추가하여 사용하
였다.

결 과

‘놀라다’를 ‘놀랍다’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일치하여, 정서 단어의 위계적 분류
뿐만 아니라 대표 정서 단어 또한 수정할 부분
이 없었다. 따라서 다시 ‘놀랍다’를 ‘놀라다’로
바꾸었으며, 대표 정서 단어는 48개로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4차 연구와 동일하였다.

6차 정서 단어 분류: 48개 단어

방 법

연구 도구

정서 단어 카드

6차 정서 단어 카드는 앞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다
만, 이전 연구에서의 대표 정서 단어 수와 동일
하나, ‘놀랍다’를 제외한 대신, ‘놀라다’를 추가
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가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점이 없으므로, 정서 단
어의 위계적 분류뿐만 아니라 대표 정서 단어
역시 수정할 부분이 없었다. 따라서 대표 정서
단어는 48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5차 연구와
동일하였다.

7차 정서 단어 분류: 48개 단어

앞서 시행한 48개 단어의 위계적 분류는 새로
게 변경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정서
단어의 분류 기준과 선택에 대한 참가자의 다각
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
다. 이처럼 정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따라 정서 차원을 분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합한 단어를 포함시
켜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구성된 대표 정서 단
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발견되는 차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 사용한 대표 정서 단
어들을 토대로 단어를 새롭게 정리하여 재도출
하였다. 최초 정서 단어 수집에서 활용한 기존
의 연구들(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외,
1993; 한덕웅, 강혜자, 2000)을 기초 자료로 사용
하였고, 제시된 정서 단어들을 다시 검토하여
주요 정서 단어 목록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유사성에 따른 대표 정서 단어의 선정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연구들과 동일하나, 기초 자료에서의 단어 추출 기준을 일부분 달리하여 단어를 정리하고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중, 이만영, 이홍철(1990)과 정비영(2016)이 제안한 정서 단어들은 다른 연구들과 대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고 단어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안신호 등(1993)은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률이 85% 이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별한 끝에 213개의 정서 단어를 산출하였다. 최초 정서 단어 수집 단계에서는 96개의 단어를 활용하였으나 본 절차에서는 사용하는 정서 단어의 수를 213개로 선정하였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단어와 그 수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사성에 따른 분류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단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연구로,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834개 정서 단어 중, 적절성의 평균값이 5.0 이상인 단어 229개를 다시 선별하여 본 절차에 사용하였으며,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산출한 434개의 정서 단어 중, 원형성의 평균값이 4.0 이상, 5.0 미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208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요 정서 단어와 대표 정서 단어의 구성 절차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몇 차례의 분류 과정을 거친 후, 48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다.

한편, 6차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 정서 단어 중 ‘열등감’을 ‘기죽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열등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며, ‘기죽다’는 기세가 꺾여 약해지다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가 유사한 다양한 단어의 제시는 분류 과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단어를 변경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덤덤하다’, ‘들뜨다’, ‘실망하다’, ‘애통하다’, ‘열등감’, ‘재미있다’, ‘절망하다’, ‘존경하다’를 제외하는 대신, ‘공허하다’, ‘기죽다’, ‘몽롱하다’, ‘비참하다’, ‘비통하다’, ‘열망하다’, ‘좌절하다’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 48개의 대표 정서 단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단어를 재검토 및 재분류하여 구성하였다.

방 법

연구 도구

정서 단어 카드

7차 정서 단어 카드는 앞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 정서 단어 수와 동일하나, 정서 단어 카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열등감’을 제외한 대신, ‘기죽다’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다르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정서 단어의 분류 내용과 대표 정서 단어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대표 정서 단어는 48개로 변경된 사항이 없었다.

8차 정서 단어 분류: 48개

방 법

연구 도구

지시문

이전 연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와 다른 점으로는 분류 범주의 수와 횡수의 변경으로써, 연습 분류는 동일하게 1회로 설정하고 정식 분류 횡수는 1회 더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 대표 정서 단어 선정: 36개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 분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지닌 보편적이고 안정된 대표 단어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단어 선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48개 단어의 재분류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신중한 선별기준과 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단어들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인지적 미성숙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단어가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해당 정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12). 따라서 아동의 정서 단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Plutchik, 2003). 또한, 목록에 포함된 단어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결 과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내용을 오버레이 하여 살펴본 결과, 유사성에 따라 같은 범주에 속한 정서 단어의 배치된 양상이 이전 연구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대표 정서 단어는 48개로 7차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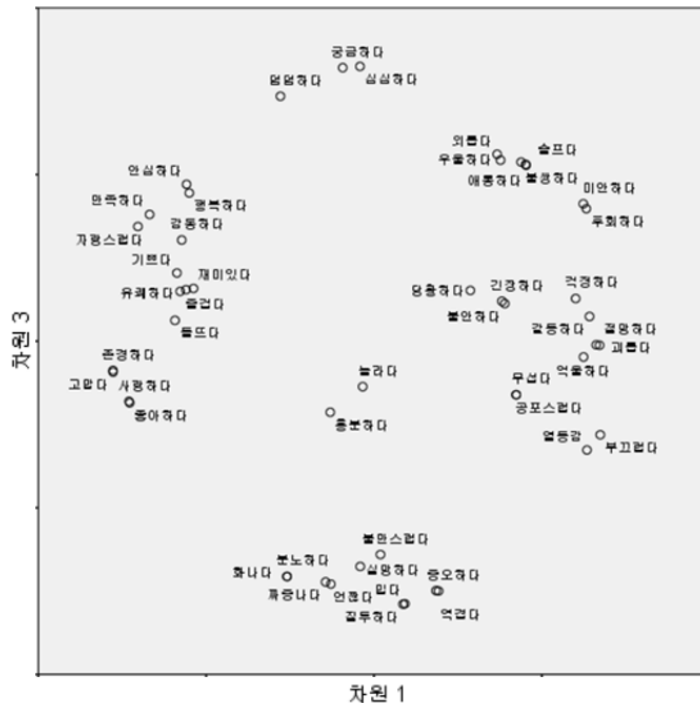


그림 3. 48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의 사용 빈도나 단어가 의미하는 해당 정서에 대한 경험 빈도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을 수 있다. 이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정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는 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Kagan, 2007). 또한, 48개 단어에 대한 유사성 분류 과제는 아동에게 비교적 과중한 작업에 해당되므로 응답 평정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서 어휘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5학년으로 구성된 아동의 내적 상태의 차원을 살펴본 문혜신 등(1998)의 연구에서 유사성에 따른 어휘를 분류하는 작업은 아동에게 따분하고 싫증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해 22개의 단어를 15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 읽기 능력의 발달을 살펴본 이수미 등(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보다 정서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의 정서 단어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 분류 과제 결과에 오판의 요인

이 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분류 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3학년으로 구성된 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8개 단어들을 다시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초등학교 3학년은 본 연구의 참가자들 중 최저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어떤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이들이 알고 있다면, 그 외 다른 집단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미리 체크하도록 하여 8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한 단어는 제외시킨 후 남은 단어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갈등하다’, ‘공포스럽다’, ‘공허하다’, ‘기죽다’, ‘당황하다’, ‘몽롱하다’, ‘분노하다’, ‘비참하다’, ‘비통하다’, ‘언짢다’, ‘역겹다’, ‘열망하다’, ‘유쾌하다’, ‘좌절하다’, ‘증오하다’, ‘질투하다’가 제외되었다(표 3).

한편, 선별 과정에서는 모르는 단어였으나 의미가 유사한 다른 단어로의 변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단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의미는 유사하더라도 개인에게 사용 빈도가 높고 친숙한 단어가 다양하므로, 알거나 모르고 있는 단

표 3. 48개 대표 정서 단어의 이해 여부 N=10

48개 대표 정서 단어							
정서 단어	모름	정서 단어	모름	정서 단어	모름	정서 단어	모름
갈등하다	9	당황하다	9	비참하다	10	유쾌하다	9
감동하다	0	만족하다	0	비통하다	10	자랑스럽다	0
걱정하다	0	몽롱하다	10	사랑하다	0	좋아하다	0
고맙다	0	무섭다	0	슬프다	0	좌절하다	9
공포스럽다	9	미안하다	0	심심하다	0	즐겁다	0
공허하다	10	몹다	0	안심하다	0	증오하다	10
괴롭다	0	부끄럽다	0	억울하다	0	질투하다	9
궁금하다	0	분노하다	10	언짢다	10	짜증나다	0
기쁘다	0	불만스럽다	0	역겹다	9	행복하다	0
기죽다	9	불쌍하다	0	열망하다	10	화나다	0
긴장하다	0	불안하다	0	외롭다	0	후회하다	0
놀라다	0	불편하다	0	우울하다	0	홍분하다	0

표 4.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목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			
감동하다	무섭다	사랑하다	자랑스럽다
걱정하다	미안하다	쌔나다	절망하다
고맙다	밋다	슬프다	좋아하다
괴롭다	부끄럽다	싫다	즐겁다
궁금하다	분하다	심심하다	짜증나다
기쁘다	불만스럽다	안심하다	행복하다
긴장하다	불쌍하다	억울하다	화나다
놀라다	불안하다	외롭다	후회하다
만족하다	불편하다	우울하다	흥분하다

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로 분류된 단어들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변경하여 제시한 후, 이 단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외된 단어들 중 ‘분노하다’를 ‘분하다’로, ‘증오하다’를 ‘싫다’로, ‘질투하다’를 ‘쌔나다’로, ‘좌절하다’를 ‘절망하다’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네 개의 단어를 변경 후 제시한 결과, 모두 잘 알고 있음을 보고하여 36개의 대표 정서 단어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논 의

정서 단어는 이러한 연구 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자극이다.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대표 정서 단어의 선정이므로, 그 기초 자료로서 먼저 정서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적합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서 차원을 분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합한 단어를 포함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구성된 대표 정서 단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발견되는 차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정서 단어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정서 단어 목록을 제작한 다섯 편의 연구들(박인조, 민경환, 2005; 안신호 외, 1993; 이만영, 이흥철, 1990; 정비영, 2016; 한덕웅, 강혜자, 2000)에 기초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가장 많이 참고 되어 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로부터 387개의 정서 단어를 수집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단어가 부족하거나 제각기 다르다는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홍영지 외, 2016),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정서 단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정서 단어를 누락하지 않고 포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박수진, 정찬섭, 1998).

정서 단어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정서 상태의 경험 빈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류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서 단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따른 정서의 경험 정도가 연령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Mroczek & Kolarz, 1998). 아울러, 정서와 정서 단어의 관계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기원에서 형성되는 듯 보이나

실제로 개인적, 문화적 다양성의 영향이 크다 (Kagan, 2007). 특히, 사람들은 익숙하게 여기는 정서 단어일수록 더욱 더 정서 단어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소한 정서 단어의 분류 과정은 그 결과에서 오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 참가자 중 최저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분류 과정을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안정성을 지닌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몇 차례의 예비 연구와 재구성 과정을 거쳐 387개의 단어는 216개, 61개, 52개, 48개로 축약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분류 과정 진행 시,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응답한 참가자 없이, 지시문의 내용에 따라 모든 단어를 각 분류 범주에 분류하였다. 이는 아동과 성인이 대표 정서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 선정 절차가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정서 단어들을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자료를 모아 포괄성을 갖춘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 단어의 총집을 구성하고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기까지 거듭 수행된 재구성 과정은 대표 정서 단어가 보다 신중한 선별 방식과 그 절차에 따라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서의 위계적 분류에 따라 정서 단어를 선별하였는데, 이는 정서가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의 특성에 따라 의미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정서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덧붙여, 각 차원을 대표하는 적합한 정서 단어를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단어의 위계 구조를 살펴볼 것을 강조한 박수진과 정찬섭(1998)의 주장에 부합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은 대표 정서 단어들 가운데 불쾌 정서가 쾌 정서에 비해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활성화 정서가 비활성화 정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한 점이다. 이는 정서 단어들의 성질과 속성을 조사한 김태용과 안도현(2011), 최해연(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바로, 이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들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단, 불쾌 정서 단어의 수가 쾌 정서 단어의 수보다 많다는 것은 부정적 상황의 경험 빈도가 긍정적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정서 경험에서 긍정적 상황이 부정적 상황에 비해 더 빈번하고 흔하게 발생한다(Gable & Haidt, 2005). 살아가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해석, 평가, 그리고 자의식 방어기제인 자존심에 의해서 부정적 정서의 경험 빈도를 주관적 입장으로 과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간의 적응 가치에 따라 발달된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적응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인간은 불쾌하거나 두려운 상황 또는 욕구 불만과 마주할 때,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방어 기제를 취하게 된다(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이러한 적응 행위는 긍정적 정서에서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는 비교적 활성화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박인조, 민경환, 2005). 다시 말해, 인간의 정서 발달 과정에서는 쾌와 비활성화 정서보다 불쾌와 활성화 정서의 구분과 대응이 더 중요시 되어 왔다(Johnson-Laird & Oatley, 1989).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 불쾌와 활성화 정서의 수가 쾌와 비활성화 정서보다 많은 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6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이루는 정서들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차원의 분화를 통해 정서 발달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인

대표 정서 단어 도구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 자료에 기초하여 정서 단어를 수집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단어 총집을 제작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한두 편의 자료만으로 단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초래하는 편파적 결과를 최대한 예방하고 각 연구에서 밝혀진 방법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단어 총집을 새롭게 구성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분류 과정을 거쳐 단어를 선별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다단계의 분류 작업을 반복 시행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단어 선별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제작하여 어린 아동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단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쾌 정서와 불쾌 정서를 통합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각기 구분한다면, 쾌 정서와 불쾌 정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서 차원의 탐색 도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표 정서 단어 도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를 다른 문화권의 정서 단어와 비교해본다면 정서가 지닌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도는 정서 단어가 나타내는 문화보편성 혹은 문화특수성을 통해 정서와 문화 간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표 정서 단어를 비롯하여 위계적 분류에 따른 주요 정서 단어는 복수의 정서 단어 범주를 갖게 됨으로써 정서의 의미와 강도가 다양하다. 다양한 정서 범주에 대한 정보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정서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 도구는 추후 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서 연구의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사람들의 감정을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및 제품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언어적 소통이 중요시되는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상황과 다양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고 이해 및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저자 소개

장혜진은 인제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및 상담심리치료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정서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이 주 연구 분야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영근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전문가로서, 정서심리와 상담이 주 연구 분야이다. 특히, 기초심리학으로써의 정서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써의 상담심리학의 연결고리를 통해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김태용, 안도현 (2011).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들

- 의 극성-각성 좌표화를 통한 해독격차 분석 및 수렴화 프로세스 제안. *한국언론학보*, 55(6), 436-465.
- 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박민, 박영옥, 천영운, 문은옥 (2012). 얼굴표정 자극에 대한 아동의 안면모방과 정서공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4), 433-452.
-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8). 감성개념 차원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1998, 59-64.
- 민경환, 구자숙 (2002). 한국어 정서단어의 구조 분석과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정서의 내용 분석. *성곡논총*, 33(3), 287-351.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 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71-581.
- 박수진, 정찬섭 (1998). 우리말 감정 어휘의 범주-차원 모형: 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하여. *한국감성과학회*, 2(1), 77-94.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손선주, 박미숙, 박지은, 손진훈 (2012). 한국어 감정표현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감성과학*, 15(1), 105-120.
- 신영숙 (2008). 정서의 이차원 모델에서 유아들의 정서발달연구. *아동교육*, 17(3), 5-13.
- 안신호 (1988). 정서발달에 관한 고찰. *서애 송대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8, 65-78.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7(1), 107-123.
- 이만영, 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 118-138.
- 이미지 (2014). 말뭉치 분석을 활용한 감정표현 어휘 교육 연구. *동남어문논집*, 38, 383-402.
-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12).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55-72.
- 이수상 (2016). 한글 감정단어의 의미적 관계와 범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51-70.
- 이수정, 유재호 (2000). 정서의 잠재적 차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39-154.
- 이혜진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457-483.
- 정비영 (2016). 유아의 정서단어 획득과 정서이해 발달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녀, 김경숙 (2010). 3세 유아의 기본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한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99-537.
- 최혜연 (2012). 한국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73-88.
- 한덕웅 (1996). 대인관계에서 4단 7정 정서의 발생 경험.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6(1), 389-409.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 7정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45-166.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한의환, 차형태 (2017). 러셀 모델의 확장을 통한 감정차원 모델링 방법 연구. *감성과학*, 20(1), 75-82.
- 허명희, 양경숙 (2001). SPSS 다변량자료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홍영지, 남예은, 이윤희 (2016). 정서가, 각성이 및 구체성 평정을 통한 한국어 정서단어 목록

- 록 개발. *인지과학*, 27(3), 377-406.
- 황대향 (2008). 한국인의 정서적 발달과업 탐색: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3), 163-189.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 1-171. doi:10.1037/h0093360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
- Cacioppo, J. T., Berntson, G. G., Larsen, J. T., Poehlmann, K. M., & Ito, T. A. (2000). The psychophysiology of emotion. *Handbook of emotions*, 2, 173-191.
- Bush, L. E.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Study Journal*, 20, 171-192.
- Ekman, P., & Oster, H. (1979).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0, 527-554. doi:10.1146/annurev.ps.30.020179.002523
- Gable, S. L., & Haidt, J. (2005). What (and why) is positive psyc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03-110. <https://doi.org/10.1037/1089-2680.9.2.103>
- Green, R. S., & Cliff, N. (1975). Multidimensional comparisons of structures of vocally and facially expressed emotions.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17, 429-438.
- Heider, K. G. (1991). *Landscapes of emotion: Mapping three cultures of emotion in Indones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W. (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3. New York, NY: Dover Publications.
- Johnson-Laird, P. N., & Oatley, K. (1989). The language of emotions: An analysis of a semantic field. *Cognition and emotion*, 3, 81-123. doi:10.1080/02699938908408075
- Kagan, J. (2007). *What is emotion?: History, measures, and meaning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alat, J., & Shiota, M. (2005). *Emotion*. Boston, MA: Thomson Learning (Thomson Wadsworth).
- Keltner, D., Sauter, D., Tracy, J., & Cowen, A. (2019). Emotional expression: Advances in basic emotion theory.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43, 133-160.
- Levenson, R. W. (2011). Basic emotion questions. *Emotion review*, 3, 379-386. doi:10.1177/1754073911410743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 630-638. doi:10.1111/j.1467-8624.1992.tb01651
- Mauss, I. B., & Robinson, M. D. (2009). Measures of emotion: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3, 209-237. doi:10.1080/02699930802204677
- Mroczek, D. K., & Kolarz, C. M.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333-1349. doi:10.1037/0022-3514.75.5.1333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doi:10.1037/0022-0167.46.3.317
- Plutchik, R. (1980).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 (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Theory of emotion* (pp. 3-31). New York, NY: Academic Press.
- Plutchik, R. (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dgeway, D., Waters, E., & Kuczaj, S. A. (1985).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norms for ages 18 months to 6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01-908. doi:10.1037/0012-1649.21.5.901
- Russell, J. A. (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52-1168.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doi:10.1037/h0077714
- Schlosberg, H. (1952). The description of facial expressions in terms of two dimen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4*, 229-237. doi:10.1037/h0055778
- Schlosberg, H. (1954). Three dimen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61*, 81-88. doi:10.1037/h0054570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well, E. R., Thompson, P. M., Tessner, K. D., & Toga, A. W. (2001). Mapping continued brain growth and gray matter density reduction in dorsal frontal cortex: Inverse relationships during postadolescent brain maturation. *Journal of Neuroscience, 21*, 8819-8829. doi:10.1523/JNEUROSCI.21-22-08819.2001
- Widen, S. C., & Russell, J. A. (2008). Children acquire emotion categories gradually. *Cognitive Development, 23*, 291-312. doi:10.1016/j.cogdev.2008.01.002
- Wundt, W. M. (1907). Über Ausfrageexperimente und über die Methoden zur Psychologie des Denkens. *Psychologische Studien 3*, 301-360.
- 1 차원고접수 : 2020. 02. 07.
수정원고접수 : 2020. 07. 29.
최종게재결정 : 2020. 08. 09.

The Development of the Tool of Representative Emotional Words to Derive the Emotional Dimensions in the Process of Emotional Development

Hyejin Jang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research is to study the emo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age by classifying representative emotion words and exploring the patterns of differentiation of emotional dimensions. In this research, 387 emotion words were gathered based on 5 preceding studies that selected a list of emotion words with different methods. In addition, 400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to repeatedly perform 8 classification tasks of emotion words based on similarities as well as classification of the resultant words, and 387 words were contracted into 216, 61, 52 and 48 words. In order to exclude errors caused by unfamiliar emotion words, the contracted 48 emotion words were resorted with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that common words for groups of various ages could be selected. As a result, 36 representative emotion words were finally chosen.

Key words : emotion, emotional words, emotional dimensions, emotion differentiation, emotional development

부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위계적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정서 단어	주요 정서 단어	
쾌	기쁨	기쁨	기쁘다	기분좋다 기쁘다 반갑다	쾌적하다 환희 희열을 느끼다
		즐거움	즐겁다	감미롭다 낙 살맛나다 상쾌하다 상큼하다 신나다 우습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즐기다 쾌감 통쾌하다 홀기분하다 후련하다 흥겹다
		감동	감동하다	가슴벅차다 감개무량하다 감격스럽다 감동적이다 감동하다	감명깊다 감탄하다 몽클하다 정하다 탄복하다
	사랑	호감	좋아하다	마음끌리다 마음이 끌리다 매료되다 반하다 선호하다 애착이 가다	이뻐하다 정감 정을 느끼다 좋다 친근감 호감
		사랑	사랑하다	그림다 동경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다 사모하다 순정 애정 애지중지하다	애뜻하다 연모하다 연정을 느끼다 열애하다 온정 짝사랑하다 흠모하다
		감사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존경심
	만족	안심	안심하다	튼튼하다 맘놓다	안도하다 안심하다
		행복	행복하다	꿈같다 담담하다 안락하다 안정되다	평안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만족	만족하다	달갑다 만족스럽다 만족하다 보람차다 뿌듯하다 자족하다	충족감 편안하다 편하다 호뭇하다 흡족하다

부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위계적 분류

(계속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정서 단어	주요 정서 단어			
쾌	만족	공지	자랑스럽다	금지 성취감 우쭐하다 의기양양하다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만심 자부하다 자신만만하다		
				놀람	놀라다	경탄하다 기겁하다 놀라다	뜨끔하다 놀랍다 아연실색하다
증렵	증렵	홍분	홍분하다			가슴이 설레다 감흥이 일다 격동하다 격앙되다 달아오르다 들뜨다 마음이 들뜨다	설레다 상승생송하다 열광하다 짜릿하다 피가 끓다 황홀하다 홍분하다
				궁금	궁금하다	궁금하다 신기하다	의심 이상아룻하다
						심심함	심심하다
				불쾌	슬픔		
우울	우울하다	애수 우울하다	울적하다 침울하다				
		고독	외롭다			고독하다 소외감 쓸쓸하다 애달프다	외롭다 적막하다 적적하다
피로움	고뇌					괴롭다	가슴이 막히다 가슴이 타다 가슴이 터지다 간장을 녹이다 간장을 태우다 갈등하다 고뇌하다 고민하다 괴롭다 망설이다 번뇌하다

부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위계적 분류

(계속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정서 단어	주요 정서 단어	
불쾌	피로움	걱정	걱정하다	걱정하다 근심스럽다 마음 졸이다 마음이 쓰이다	막막하다 심란하다 염려하다 우려하다
		좌절	절망하다	갑갑하다 실망스럽다 실망하다 답답하다 암담하다	절망적이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체념하다 하늘이 감감하다
	무서움	무서움	무섭다	간담이 떨어지다 간담이 서늘하다 겁나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떨리다 등골이 서늘하다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섬뜩하다 소름끼치다 아찔하다 진율하다 황공하다
		불안	불안하다	동요하다 뒤숭숭하다 마음에 걸리다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	조바심 찜찜하다 찻찻하다 초조하다
		긴장	긴장하다	강박상태 긴장하다	절박감
	불쾌	분노	분노	격노하다 격분하다 격하다 분개하다 분노하다 분하다	비분강개하다 울분하다 울화통 터지다 울화통이 터지다 치가 떨리다
화남			화나다	노엽다 노하다 발끈하다 부아가 나다	성나다 성내다 약오르다 화나다
짜증		짜증나다	기막히다 기분 나쁘다 꺼림칙하다 귀찮다 달갑지 않다 불유쾌하다 불쾌하다 신경질 신경 질나다	짜증나다 짜증내다 속상하다 썩쓸하다 아니꼽다 야속하다 어이없다 언짢다	

부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위계적 분류

(계속 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 정서 단어	주요 정서 단어		
불쾌	혐오	혐오	싫다	거부감	역겹다	
				모멸감	진절머리가 나다	
				보기싫다 싫어하다 싫증나다	질리다 혐오하다	
	혐오	증오	밉다	가증스럽다	시기하다	
				경멸하다	싫다	
				쾌썬하다 미워하다 밉다 반발심 배신감	알밉다 원망하다 적대감 정말어지다 증오하다	
	혐오	질투	샘나다	부럽다	질투하다	
				샘나다		
	불만	불만	불만스럽다	불만스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시무룩하다 시원섭섭하다	시큰둥하다 아쉽다 욕구불만 토라지다	
				불편	불편하다	벽차다 부담스럽다
	수치	수치심	부끄럽다	굴욕적이다 기죽다 낮간지럽다 망신스럽다 멋쩍다 모욕적이다 무안하다 민망하다 부끄럽다	수치 수치스럽다 쑥스럽다 열등감 의기소침하다 주눅들다 창피하다 치욕스럽다 패배감	
후회				미안하다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 죄책감
					후회	후회하다
측은	측은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엾다 눈물겹다 동정하다 딱하다 불쌍하다 비장하다 비참하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애잔하다 애처롭다 연민을 느끼다 참담하다 처량하다 처참하다 측은하다		
			억울함	억울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원한에 차다